

칩스앤미디어는 ‘한국의 ARM’

세계 30위권 IP 전문기업...글로벌 40여개사가 고객 ‘성장 질주’

올 매출목표 108억...연내 코스닥 상장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장 부상한 기업은 AP를 만드는 퀄컴·엔비디아·삼성전자 등이 아니라 영국의 ARM이다.

영국의 ARM은 시스템반도체의 특정기능을 블록처럼 넣을 수 있는 반도체설계자산(IP) 기업으로 모바일 CPU IP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다. 퀄컴, 엔비디아, 삼성전자 AP에도 모두 ARM의 IP가 사용된다.

제조업체나 설계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적

자산만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칩스앤미디어(대표 김상현)는 이달말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거쳐 연내 상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코스닥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프리스케일 등 글로벌 기업에 비디오효용 IP를 공급해왔다.

고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매년 15~20% 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해에는 9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108억원이 목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나 설계해 판매하는 종합반도체 기업들에 비해 매출 규모는 작지만 영업이익은 30%에 육박한다.

매출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라이선스피(기술허여료)와 매출 발생시 매출의 일부분을 받는 로열티로 구성돼 그다지 크지 않지만 R&D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이 적은 만큼 수익성이 높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겪을 때에도 성장했다.

풀HD를 구현하면서도 전력소모가 적어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칩스앤미디어 IP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한번 라이선스를 맺은 기업이 이탈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번 고객에 계속 고객이 된 것이다.

고객도 미국·대만·중국·한국 등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40여개 글로벌 기업이 칩스앤미디어의 고객이다.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도 사무소를 뒀다.

이 회사의 비디오 IP를 채택해 양산된 칩은 이미 5000만개를 넘어섰다. 전세계 IP 매출 순위 30위권에 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칩스앤미디어 김상현 대표는 “매년 15~20% 정도로 꾸준한 성장해왔다”며 “전 세계 고객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비디오 IP 부문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연구개발한 점 등이 꾸준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노조 “매각과정 주시”

자금력·고용계획 등 검증...“해외자본 유입 신중해야”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하이닉스반도체 노동조합이 최근 진행 중인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해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나 인력 고용 및 미래투자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박태석 하이닉스 이전사 임장노조위원장(사진)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2개 그룹사가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본질적인 진행된 이후에는 자금과 고용 문제, 미래 청사진 등 3가지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반도체가 장치 산업이지만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고용 문제는 하이닉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다”고 말했다.

STX가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한 중동펀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 의향서를 밝힌 기업들의 주가가 ‘인수 후 대규모 투자 우려’로 연일 급락하는 등 하이닉스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주식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그동안 위기를 거치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인수가 안돼도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필요가 있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전압 라인 드라이버 아바코, 3개모델 출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아바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대표 전성민)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전압 라인 드라이버(사진) 3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최대 30V전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인코더 응용을 위한 산업표준에 부합하도록 확장된 동작온도 범위를 제공한다.

AEIC-7272및AEIC-7273의 동작온도는 -55~125°C이고 AEIC-2631는 -40~125°C이다. 이 제품은 모두 산업표준 라인 드라이버 패키지로 SOIC형태로 제공된다.



지능형 모형차, 파이팅! 프리스케일반도체가 후원하는 ‘제9회 2011년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가 14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렸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을 꿈꾸는 전국 50개 대학, 100개팀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서울시 LED조명 기준 ‘엄격하게’

광효율 5~10lm/W 상향 등 고품질 구매 유도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서울시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서울시는 고품질 LED조명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2011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보급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광효율은 지난해 대비 5~10lm/W로 상향됐다. 온도변화에 대한 광변화율도 기존 ±25%에서 ±10% 이내로 제한됐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LED 보안등 등기구 무게를 지난해 15kg이하에서 올해 150W

이하 제품은 10kg 이하로, 150W 이상은 15kg이하로 세분화했다.

LED 조명 사후관리를 위해 LED 자발적 관리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LED조명 구매부서가 실제 조명환경을 고려한 구매기준을 제시하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제시 기준에 맞는 제품 성능서를 제출하고 보증 기간에 납품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색공간분포’ 기준도 도입, LED조명의 색 열록 현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조명 환경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이들 기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

지만 시내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LED조명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어서 LED조명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납품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LED보급 기준을 토대로 시범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달부터 공원, 병원, 청사 등 공공기관이나 시설 14곳에 올 연말까지 약 7000개의 LED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측은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전량 LED로 교체하는 계획에 맞춰 올해 시범보급 사업계획과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드반테스트, 베리지 인수 세계 최대 검사장비 업체로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아드반테스트는 미국 장비업체인 베리지에 대한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드반테스트는 총 11억달러에 베리지를 인수, 경영을 통합해 매출 규모 약 17억달러, 검사장비 시장 점유율 40%를 넘어서면서 미

국의 테라다인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검사장비 업체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인 아드반테스트는 반도체 설계 검증과 평가 테스트 솔루션을 보유한 베리지와 결합,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테스트 분야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베리지가 기반을 두고 있

는 구미 시장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강한 아드반테스트의 영업력이 합쳐져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통합 시너지 강화를 위해 ‘사업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마케팅 강화와 기술 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본사에서 생산하던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를 국내로 전량 이전기로한 아드반테스트코리아도 베리지코리아와의 통합 작업에 착수, 중북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한 마케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갑자기 회사 ERP 서버가 망가지면?
갑자기 내 e-mail이 지워지면?
직원들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면?

그냥두면 회사에 큰일이 생기겠네!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백업 구축 비용이 넘 비싸고...
뾰족한 대책이 없네...

대책 없는 우리회사 데이터 관리를 스마트하게 바꾸다!

클라우드백업 v7이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최고의 대한민국 토종 데이터 백업·아카이빙 기술

시험판 www.innotium.com/download/cloudbackup7.exe

최강의 한국형 토종 기술 탑재 데이터 중복방지/제거 기술 실시간/스케줄 백업 기술 복사본/한방향/양방향 동기화 기술 중앙관리에 의한 데이터 백업	재해 대비 무중단 서버 데이터 백업 실시간 DB(SQL,Oracle)/파일 백업 중복제거/압축 적용 50%이상 Storage비용 절약 Lock File백업 CPU유류타입 백업	중요 업무용PC 데이터 백업 MS-Outlook(PST) 백업 개인별 File 백업 암호화/압축 보안백업 파일별 이력관리/입력장치 유류타입 백업	편리한 중앙관리에 의한 데이터 백업 개인별/그룹별 백업정책 수립 개인별/그룹별/전체 백업통제 관리 백업 상황에 대한 주기적 통보 기능
---	--	---	--

제휴파트너 (주)틸론/(주)명정보기술/(주)나무소프트/(주)에프엑스컨설팅/프로넷소프트(주)/(주)에이블스��어/(주)한성SMB/(주)오스테이션/(주)코아인텍/이위더스(주)/(주)아이티네트웍스/(주)JMT테크놀로지
영남지역총판 ㈜나인시스템 T. 053-562-0016